

# L.I.C. 신축 콘도 분양 본격

## ‘베리’ · ‘스타 타워’ 등 홍보 적극

퀸즈 롱아일랜드시티의 신축 콘도미니엄들이 본격적으로 분양을 하고 있다.

지난 2-3년전부터 재개발 붐이 일기 시작한 이 지역에서는 일부 콘도미니엄의 분양이 시작됐으며, 내년 초 완공을 겨냥한 공사가 한창이다.

내년 3월 완공 예정인 베리(Vere) 콘도미니엄(26-23 Jackson Ave.)은 지난 6일 분양 사무실에서 오픈하우스 행사를 열고, 홍보 활동을 벌였다.

베리 콘도미니엄은 8층 높이에 총 43개 유닛을 갖고 있다. 공간은 479-1,190스퀘어피트까지 다양하며 개인 테라스나 발코니 시설도 있다. 무엇보다 넓은 실내공간과 함께 맨하탄으로 가는 E, V, G, 7 지하철 등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가격은 스튜디오의 경우 33만-37만달러이며, 1베드룸은 42만-9,000달러에서 67만3,000달러까지 다양하다.

올해 완공 후 분양을 하고 있는 ‘스타 타워’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여전히 인기가 높다.

‘노 디벨롭먼트(Roe



퀸즈 롱아일랜드시티에 위치한 베리 콘도미니엄은 6일 사무실에서 분양을 위한 오픈 하우스를 실시했다. 이 콘도미니엄은 편리한 교통과 넓은 실내공간 등이 큰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Development Corporation 대표 노범정) 사의 이 콘도미니엄은 25층으로 180유닛이 있다.

이밖에도 크레센트(Crescent) 등 롱아일랜드시티 인근에는 올해 적어도 5-6개의 고급 콘도미니엄 건축이 진행 중이며 빠르면 내년 초에는 분양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뉴욕의 부동산 시장은 재력을 갖춘 아시아계 미국인

들이 선호하는 것이 특징이다. 뉴욕타임스는 아시아인 아메리칸이 뉴욕시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 정도지만, 롱아일랜드시티와 브루클린 등의 지역에 신축 중인 일부 콘도 매매에서는 15~50%를 차지할 정도로 부동산 투자자를 이끌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주찬 기자〉

### 우리업소자랑

## 채무액 조정등 세금문제 해결

### 성문회계법인

성문세무회계법인은 자영업자들의 세금 문제 해결과 회계사와 고객 간 일대일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사업체 세금과 관련, 성문세무회계법인의 정희석(사진) 회계사는 연방국세청(IRS)과 뉴욕주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는 “고객의 92만달러 상당의 채무액을 정부 기관과 협상해 2만4,000달러까지 낮춘 적 있다”며 “채무액은 대부분 협상을 통해 낮출 수 있지만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채무액이 늘어나는 대부분의 이유는 IRS의 편지나 통지서를 제때 읽지 않고 방치해 두거나, 회계사의 실수 때문이라는 것이 정 회계사의 설명이다.

따라서 채무가 있으면 정확한 회계 업무를 통한 빠른 납부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갈수록 늘어나고 이자까지 붙는다.

회계사를 통해 세금보고를 했어도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하므로 전문 회계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정 회계사는 “한때 자영업자로서 납세자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채무는 사망할 때까지 따라붙고 공공 기록에도 남으므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문세무회계법인은 사업을 시작하는 자영업자의 회사설립과 리스계약, 세금보고, 면허신청 등의 업무도 맡는다. 소셜시큐리티 카드가 없는 이들을 위한 세금보고와 텍스 ID 신청도 담당한다.

고객과의 일대일 상담을 통한 업무 처리를 중시하는 정 회계사



“성문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하려 애쓴다”고 말했다. ▲문의: 718-886-5011, 주소: 35-02 150Pl. Suite 204, Flushing

〈정보라 기자〉

### 개업했어요

## 문턱낮춘 편안한 병원 지향